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정책학 석사 학위논문

공동체 탄력성이 재난대응
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불만의 조절효과 검증 -

2021년 2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배 경 진

공동체 탄력성이 재난대응
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불만의 조절효과 검증 -

지도교수 김 준 기

이 논문을 정책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9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배 경 진

배경진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0년 12월

위 원 장 구 민 교 (인) 
부위원장 고 길 곤 (인) 
위 원 김 준 기 (인) 

국문초록

본 연구는 공동체 탄력성이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해당 영향 관계에 대한 사회적 불만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여 공공의 재난대응을 개선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공동체 탄력성은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 등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여 분석하였으며, 각각이 재난대응 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실시한 재난피해자 삶의 변화 추적패널 3차년도(2018년)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결측치와 미응답자를 제외한 총 2,266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5.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체 탄력성의 구성 요인 중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은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분석 결과 사회적 불만은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 간의 조절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불만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은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에 유사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동체 탄력성의 구성 요인 중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는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사회적 불만은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가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조절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불만은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와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 간의 정(+)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정부의 재난대응에 있어 지역 구성원들 간의 공동체 소속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공공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만큼 사회적 불만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구나 개별 단위의 재난대응보다는 공동체 단위의 재난대응 정책을 고민해야 하며, 재난 피해 상황으로부터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도시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지역 단위의 재난대응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재난 구호 지원 서비스의 배분 불평등과 재난 보도에 대한 미디어 왜곡을 최소화함으로써 공동체 분열을 막고 사회적 불만을 줄일 수 있는 재난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기후위기, 재난관리, 재난피해자, 공동체 탄력성, 사회적 불만, 재난대응 성과

학 번 : 2019-24707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4
제 1 절 이론적 배경	4
1. 국내 발생 재난의 특성	4
2. 공동체 탄력성	7
3. 사회적 불만	9
4. 재난대응 성과	10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1
1. 공동체 탄력성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11
2. 사회적 불만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13
3. 정부의 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14
4. 선행연구 종합 검토	15
제 3 장 연구설계	16
제 1 절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16
1.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16
2. 가설설정	18
제 2 절 변수설정	18
1. 종속변수	18
2. 독립변수	19
3. 조절변수	21
4. 통제변수	22

제 3 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23
1.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의 특성	23
2. 분석방법	24
제 4 장 연구결과	25
제 1 절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25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25
제 2 절 측정도구의 신뢰도	26
1. 측정도구의 신뢰도	26
제 3 절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27
1. 기술통계	27
2.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29
제 4 절 변수 간 영향 관계 검증	33
1.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불만의 조절효과	33
2.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가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불만의 조절효과	37
3. 가설검증 결과 요약	41
제 5 장 결론	42
제 1 절 요약 및 시사점	42
1. 연구의 요약	42
2. 연구의 시사점	44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47

참고문헌	50
Abstract	58
<부록>	61

표 목 차

[표 3-1] 종속변수 및 설문항목	19
[표 3-2] 독립변수 및 설문항목	21
[표 3-3] 조절변수 및 설문항목	22
[표 4-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25
[표 4-2] 측정도구의 신뢰도	27
[표 4-3] 기술통계 결과	28
[표 4-4]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32
[표 4-5]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재난대응 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불만의 조절효과	36
[표 4-6] 지역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재난대응 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불만의 조절효과	40
[표 4-7] 가설 검증 결과 요약	41

그 립 목 차

[그림 3-1] 연구 설계의 개념적 준거틀	17
[그림 4-1]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 간 관계에서 사회적 불만의 조절효과	35
[그림 4-2] 지역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 간 관계에서 사회적 불만의 조절효과	39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는 이제 라니냐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인간이 유발한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고기온 현상부터 산불, 홍수, 그리고 해상 폭염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이상기후가 지속될 것이며, 이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기후 동인이 아닌 온실가스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매년 크고 작은 사회재난들을 경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 발생빈도까지 높아져, 이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16년 9월 발생한 5.8 규모의 경주 지진과 2017년 11월 발생한 5.4 규모의 포항 지진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재난 상황은 개인의 역량으로 독자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므로 공공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중앙정부의 역할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추세이다. 특히 재난 발생 시 공공부문의 대응은 객관적인 지표와는 별개로 재난피해자들이 체감하는 주관적 지표에 의해 평가받을 수 있다.

정부성과는 시민들의 주관적 평가와 판단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며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로 이해될 수 있다(Van Ryzin, 2004a). 정부가 아무리 객관적인 지표와 수치를 통해 성과를 제시하여도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정부성과를 낮게 평가할 수 있다(김영주, 2019). 특히 참여정부 이후 지방분권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가 요구됨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들

의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가 공공부문의 재난대응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에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를 통해 구축되는 공동체 탄력성이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를 인식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영향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커뮤니티 붕괴, 구호 지원 서비스의 배분 형평성에 대한 불만족, 미디어의 왜곡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불만이 공동체 탄력성과 재난대응 성과 인식 간의 영향 관계에 조절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 정책과 재난구호 사업 구상 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에 재난·안전을 주제로 한 연구의 경우, 심리학·사회학·행정학 분야의 사회적 자본과 회복탄력성 등 공동체 탄력성에 관한 연구(권혜지, 2020; 김이레·오설미, 2020; 이원익, 2020; 노진철, 2018; 김영주, 2017; 오혜영, 2016; 최예나, 2016), 사회적 불만과 관련한 사회학·행정학 분야의 연구(김민수·이용호·배병규, 2019; 김진현, 2019; 임인재·나은영, 2019; 구교태, 2014; 홍덕화·구도완, 2009), 정부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김영주·문명재, 2020; 김영주, 2019; 최미정·은재호, 2018; 박정호, 2014), 그리고 재난관리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연구(이관후, 2020; 양기근, 2009; 조남홍·채원호, 2008)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는 ‘공동체 탄력성이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연구문제에서 시작한다. 이에 공공부문의 재난대응 성과를 인식하는 데 있어 재난피해자들의 공동체 탄력성, 즉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영향요인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동시에 재난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불만이 공동체 탄력성과 공공부문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 간의 영향 관계에서 어떤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재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난피해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난대응을 시행하는 것은 정부의 재난대응 성과 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 실제 정책대상 집단인 재난피해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영향요인(공동체 탄력성, 사회적 불만)을 분석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향후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재난피해자들의 공동체 탄력성이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이다. 해당 연구는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실시한 재난피해자 삶의 변화 추적 조사의 3차(2018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재난피해자 삶의 변화 추적조사’는 재난피해자 삶의 질 측정기술 개발을 기틀로 하여 2016년도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국내 재난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특정 계층이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피해자들에게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는 국내 최초의 재난피해자 종단조사이며 해당 조사를 통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재난피해자에 대한 7,205개의 자료가 구축되었다(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9). 1차(2016년) 조사는 크게 심리적 영역, 보건적 영역, 경제적 영역, 사회적 영역, 국가지원서비스, 안전의식 등 6개 영역으로 구분했지만, 2차(2017) 조사부터는 재난 경험, 신체 건강, 심리상태, 사회, 경제, 구호서비스 등의 영역으로 재분류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9).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3차(2018년) 데이터는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 지진 피해자를 포함하여 총 2,311명으로 조사대상 인원을 확대하였다. 또한, 2차 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공동체 탄력성 관련 항목들이 추가되었다. 3차 데이터의 경우 앞선 차수보다 재난 유형별 대상과 표본의 수가 늘어났으므로 표본의 대표성이 더욱 높은 데이터로 볼 수 있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이론적 배경

1. 국내 발생 재난의 특성

재난은 크게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연재난이란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한다(출처: 국민재난안전포털). 반면, 사회재난이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의미한다(출처: 국민재난안전포털).

자연재난 중 국내에서 가장 발생빈도가 높은 재난에는 태풍, 한파, 폭염, 지진, 산사태, 황사, 홍수, 침수 등이 있다. 최근 10년간 대규모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발생시킨 대표적인 자연재난은 경주시에서 2016년 9월 12일에 발생한 5.8 규모의 지진으로, 이는 지진 관측 이래로 한반도에서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다. 당시 정부는 지진피해로는 처음으로 경상북도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대규모 지진에 대한 대응책이 미처 마련되기도 전인 2017년 11월 15일 포항시에서 규모 5.4의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였고, 이는 경주 지진과 더불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큰 규모의 지진에 속한다. 당시 포항 지진의 경우 경주 지진보다 고층 건물 붕괴 피해가 커 진양 주변 구조물 손상으로 인한 부상자들과 대규모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처음으로 정부가 대입 수

학능력시험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폭염의 경우 이미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전 세계의 평균기온이 상승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3년 이후 2018년 여름인 6월에서 8월 사이 가장 높은 전국 평균기온을 기록하였고, 일 최고기온과 일 최저기온은 두 번째로 높게 측정된 바 있다. 또한, 홍천이 일 최고기온 41.0°C를 기록(2018년 8월 1일 기준)하면서 대구에서 기록했던 역대 1위인 40.0°C(1942년 8월 1일 기준)를 경신하면서 국내에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였다. 수도권 서울의 경우에는 39.6°C를 기록(2018년 8월 1일 기준)하면서 기상관측이 시작(1907년 10월 1일 기준)된 이래 111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였다(행정안전부 재해연보, 2018). 이후 현재까지 여름철 고기온 현상은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상 기온상승은 지속될 전망이다.

2020년 한반도에서 발생한 장기간 장마 현상으로 인한 침수피해 또한 눈여겨보아야 할 자연재난 현상이다. 지난 48년 동안 한반도 전역 52개 지점에서 관측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장마는 총 강수량(6월 1일부터 8월 15일 평균)뿐만 아니라 장마 기간의 측면에서도 매우 이례적이었으며, 특히 7월 말에서 8월 중순까지는 평년 강수량의 두 배가 넘는 비가 지속적으로 내려 그 기간만 고려하면 1973년 이래로 비가 가장 많이 내렸다고 볼 수 있다(출처: 기초과학연구원). 또한, 상대적으로 재난대응 체계가 덜 갖추어진 북한의 사전 상의 없는 황강댐 무단 방류로 인해 경기도 연천군과 파주지역 일대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사회재난의 경우, 국내에서 가장 발생빈도가 높고 대규모 피해를 초래한 재난에는 화재, 폭발, 가축 질병, 산불, 수난사고, 감염병, 수질오염, 전기·가스 사고 등이 있으며, 2019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되었다. 최근 10년간 대규모 인명 피해

와 재산 손실을 발생시킨 대표적 사회재난에는 2019년 발생하여 전 세계 팬데믹으로 이어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2015년 186명의 감염자와 38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중동 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감염재난으로 볼 수 있다.

산불은 봄과 가을철에 자주 발생하는 사회재난 중 하나이다. 2019년 4월에 발생한 강원 동해안 산불의 경우에는 강원도 고성, 속초, 강릉, 동해, 그리고 인제 일대를 덮치는 대규모 산불로 번졌으며, 당시 정부는 강원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2019년 4월 4일 저녁부터 강원 동해안 일대에서 동시에 발생한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 소방청은 화재대응 최고 수위인 3단계를 발령하였고,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가용한 소방자원을 총동원하였다. 전국에서 단일화재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인 누적 29,797명의 인력이 투입되었으며, 진화 헬기 105대, 산림청 산불진화차 및 소방차 1,374대가 투입된 바 있다. 특히,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고성지역의 경우 화재 발생 13시간 만에 산불이 진화된 바 있다(행정안전부, 2019;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인용, 2019).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수난사고로는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당시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4명(전체 탑승자 476명)이 사망·실종된 대형참사이며, 당시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의 침몰 원인에 대해 화물 과적, 고박 불량, 무리한 선체 증축, 조타수의 운전 미숙 등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출처: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당시 정부의 미흡한 초동대처로 인해 국민적 비난의 여론이 있었으며, 경기도 교육청이 침몰사고 직후 전원이 구조되었다는 잘못된 내용을 발표하여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면서 국가의 재난대응시스템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대두되었던 대표적인 사회재난 사건이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 대부분 중앙정부 주도로 재난 대응이 이루어졌으며, 국민들 또한 재난대응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자연재난의 경우 지리학적 요인으로 인해 지역별로 재난 유형과 재난 피해 정도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역량 또한 요구되는 실정이다.

2. 공동체 탄력성

공동체 탄력성(Community Resilience)은 재난 이후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회복 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한 개념이다.

도시화와 1인 가구의 증대, 지역공동체의 해체 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인하여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며, 사회적 자본은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적 응집성(social cohesion)의 수준을 대변한다(최예나, 2016). 공동체 탄력성은 이 같은 사회적 자본을 바탕으로 구축되는데,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 중 본 연구에서 집중하는 요인은 지역 구성원들의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신뢰이다. 공동체 의식은 일종의 소속감으로서 구성원들이 한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는 감정이며, 재난과 같은 공동의 문제 발생 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로 정의할 수 있다. 한편, 사회적 신뢰는 공동체 내 개별 구성원들 간의 신뢰는 물론, 집단 간 신뢰로서 지역사회나 지방정부에 대한 지역 구성원들의 신뢰로 정의할 수 있으며, 공공의 역할이 중요한 재난 상황에서는 지역 구성원들 사이에서 구축된 사회적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기후재난의 경우 지역별로 재난 발생빈도에 편차가 크고 지리적 여건에 따라 발생하는 재난의 종류와 그 피해 규모도 달라진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 탄력성은 도시 및 지역 단위의 재난

대응 및 재난 회복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개념인 탄력성(resilience)은 재난을 경험한 국가나 도시가 그 이전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하며 비교적 최근에 재난 관련 연구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즉, 공동체 탄력성이란 사회적 자본인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재난을 경험한 이후 재난 발생 이전의 상태로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역량으로 정의할 수 있다.

공동체 탄력성이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측해 볼 수 있다. 먼저, 사회적 자본의 구성 개념인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신뢰를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소속감과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가 구축될 경우, 이는 공공의 재난대응에 대한 높은 정책 수용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결국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대응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높여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연구가설이기도 하며 이미 지역사회에 구축된 사회적 자본이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외에도 최남희(2016)는 공동체 탄력성의 핵심을 협력과 협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구성원들의 역량이 커질수록 지역사회는 재난으로부터 더욱 빠르게 회복할 수 있고, 재난으로부터 배운 경험을 토대로 더욱 안전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노진철(2018)은 공동체의 탄력성이란 대형참사가 공동체에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대처 능력(McEntire, 2001; UNISDR, 2005; Berke & Campanella, 2006)이라는 정의를 재인용함으로써 재난을 회피 대상이 아닌 공동체의 성장 기회로 볼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김이레·오설미(2020)는 공동체 탄력성을 재난관리 단계에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신속하게 대응 및 복구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중심의 지역사회 역량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진행됨에 따라 공동체 탄력성을 해당 기관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념인 공동체 구성원이 인식하는 소속집단의 위기 극복 능력인 공동체의 회복 탄력성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또한, 공동체 탄력성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으로 구성원들의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를 포함하고자 한다.

3. 사회적 불만

사회적 불만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재난피해자들이 느끼는 심리적 무력감, 구호 지원 서비스의 배분 형평성에 대한 불만족, 미디어 왜곡 등의 요인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일종의 사회적 갈등이며, 특히 재난 피해 상황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정부-재난피해자, 사회-재난피해자 그리고 재난피해자들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재난은 발생 시기와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공공의 재난대응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재난대응에 그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재난 발생 시 공공의 재난관리는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 차원의 재난 지원체계와 서비스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난피해자들은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피해 외에도 지역사회나 정부를 향한 불만을 가질 수 있다. 즉, 재난 상황에서 무분별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서비스 지원은 지역사회 내 갈등을 발생시키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는 계기가 된다(김민수 외, 2019).

이 같은 사회적 불만은 사회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 외부적 요인들과 결합하여 부정적으로 표출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재난 상황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불만이 공동체 탄력성과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 간의 영향 관계에 조절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그 바탕으로 한

다. 앞서 언급했던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중 사회적 신뢰는 인지된 재난구호 지원 서비스(재난지원금, 구호 물품 등)의 배분 불평등이나 미디어 왜곡 등에 의해 저하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불만을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느낄 수 있는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무력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해당 개념은 구호 지원 서비스의 배분 형평성으로 인한 정부(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와의 갈등과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동체 내의 갈등, 그리고 언론 보도에 대한 불만족 등의 구성요소를 포함하고자 한다.

4. 재난대응 성과

공공의 구호서비스에 대한 종합 평가는 크게 구호서비스에 대한 종합 만족도, 지원 및 배분 적절성, 기관별 대응 평가, 국가 재난 대응능력 평가로 구성할 수 있다. 기관별 대응능력에 대한 평가는 재난 발생 후 각 기관의 업무 대응에 대한 만족도를 바탕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으로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시청, 도청), 경찰서, 소방서, 시민단체로 구성할 수 있다(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9).

김영주(2019)는 재난 발생 이후 정부 차원에서 재난대응과 재난피해자 구호에 총력을 기울이더라도 피해자들의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재난구호 성과를 재난피해자들에 대한 구호활동의 대응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재난구호 기관이 재난피해자들의 기대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때 재난구호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업, 협력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 공공영역의 활동을 통해 생산되거나 성취된 결과

로 정의할 수 있다. 공공영역의 성과는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평가되어야 하지만, 재난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대응 정책의 경우에는 정책대상 집단의 주관적인 평가를 반영하는 것도 그 자체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에 지역사회 공동체 탄력성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과 동시에 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불만이 이들의 영향 관계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 공동체 탄력성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지금까지 재난·안전 분야에서의 공동체 탄력성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다수는 심리학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재난 이후 재난피해자들이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나 우울감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

김이레·오설미(2020)는 공동체 탄력성이 재난피해자의 PTSD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도출하였다. 공동체 탄력성은 PTSD에 부(-)의 영향을 미쳤으며, 공동체 탄력성이 재난피해자의 PTSD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검증함으로써 지역사회 차원에서 심리적 회복을 돕는 것이 재난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원익(2020)은 가구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1인 가구의 삶의 질이 다인 가구에 비해 유의하게 낮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1인 가구의 경우 재난 발생 이전에도 약한 사회적 지지를 받지만, 재난 발생 시에는 재난대응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며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상대

적 기여도가 높은 주원인임을 밝히고 있다.

권혜지(2020)는 재난피해자들의 재난 경험 시기, 나이, 가구소득, 교육 수준, 체감피해 규모가 피해자들의 삶의 질과 유의미한 관계성을 가진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회복 탄력성이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회복 탄력성이 증가할수록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회복 탄력성이 재난경험자의 삶의 질에 보호 요인으로써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행정학·사회학 분야에서 공동체 탄력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주로 사회적 자본, 정부 신뢰, 시민참여 등과 관련된 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김영주(2017)는 정부 신뢰, 재난 경험, 사회적 자본과 재난위험 인식 간 영향 관계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정부 신뢰가 재난위험 인식에 미치는 영향’, ‘재난 경험이 재난위험 인식에 미치는 영향’, ‘재난위험 인식에 사회적 자본이 미치는 영향’, ‘정부 신뢰와 재난 경험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 등을 분석한 결과, 정부 신뢰가 높을수록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한 위험 인식이 감소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노진철(2018)은 재난이 공동체 탄력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특히, 재난의 원인이 외부환경이 아닌 공동체에 귀속되면서 재난 관리 정책도 사회적 불신과 사회적 고통을 경감시키는 재난공동체 탄력성에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행정학·사회학 분야에서 진행된 재난상황에서의 공동체 탄력성을 논의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일부 연구에서 공동체 탄력성과 정부 신뢰 간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고 있지만, 본 연구는 공동체 탄력성의 하위 개념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의 개념을 설

정함과 동시에 공동체 탄력성이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2. 사회적 불만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사회적 불만의 개념을 다루는 연구는 국내에서 대규모 재난들이 발생하고 있는 최근 몇 년간 이루어진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특히, 재난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갈등 발생 정도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일부 존재한다.

김민수·이용호·배병규(2019)는 재난피해자들의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피해가 사회적 불만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재난 피해와 사회적 불만 간의 관계에서 국가의 서비스 지원이 가지는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재난피해자들의 인구학적 요인에 따라 사회적 불만 발생 정도에 차이가 있었으며, 국가의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질 때 오히려 사회적 불만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국가의 재난구호 서비스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홍덕화·구도완(2009)은 2007년 태안군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갈등의 특성과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갈등 진행 과정을 응급복구 시기, 갈등 폭발 시기, 갈등의 제도화/내부화 시기 등으로 구분하면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갈등이 공동체 내부로 전이되어 공동체의 해체를 불러왔음을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선행연구들은 재난 발생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심리적,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고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에 의한 사회적 불만을 주로 다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불만이라는 개념의 하위요인으로 심리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언론·미디어에 대한 만족도를 함께 구성하였으며, 이러한 사회적 불만을 공동체 탄력성과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 간의 영향 관계에서의 조절변수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3. 정부의 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정부의 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는 재난·안전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행정학 분야 전반에서 살펴볼 수 있다.

김영주(2019)는 공공의 재난구호 서비스는 재난피해자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난구호활동의 성과는 공공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공공영역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관리 내부의 객관적 지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책 수혜집단이 평가하는 성과는 객관적 지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최미정·은재호(2018)는 2015년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당시의 빅데이터 감정분석을 통하여 사람들의 감정 변화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부정 정서와 불신이 심각했던 대상은 메르스 질병 자체가 아닌 메르스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이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정부의 정보 공개 투명성 정도에 반비례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공공의 성과는 정책대상 집단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특히 재난 발생 시에는 심리적인 요인이 더욱 크게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객관적 지표를 통한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평가가 아닌 재난피해자들에게 인지된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를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연구들과의 차별성을 가진다.

4. 선행연구 종합 검토

지금까지 국내의 재난관리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자연재난의 특성상 지리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의 재난대응 정책수립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강화되는 현 시점에서 지역 단위의 재난대응 방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재난대응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해당 연구는 공동체 탄력성을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 등 두 가지 하위요소로 구성하였다. 지금까지 공동체 탄력성과 관련된 연구가 주로 심리학 분야에 국한되어있었던 점을 감안하였을 때, 해당 연구는 행정학·정책학 분야에서 공공의 재난관리에 있어 공동체 탄력성을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재난 구호 지원 서비스의 배분 불평등이나 미디어 왜곡에서 오는 불만 요인들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인지된 재난 구호 지원 서비스의 불평등과 미디어 왜곡에서 오는 불만 등을 사회적 불만으로 정의함과 동시에, 이들이 공동체 탄력성과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의 영향관계에서 어떤 조절작용을 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앞선 선행연구들과의 차별성을 가진다. 특히, 재난피해자들이 인지하는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연구 목적에 더욱 집중함으로써 앞선 선행연구들에서 집중하는 공동체 탄력성, 정부의 재난대응, 사회적 불만 등의 세부 영향요인들을 바탕으로 이들 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보다 통합적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제 3 장 연구설계

제 1 절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1.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는 아래와 같다.

문제 1. 공동체 탄력성은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가?

문제 2. 사회적 불만 수준에 따라 공동체 탄력성이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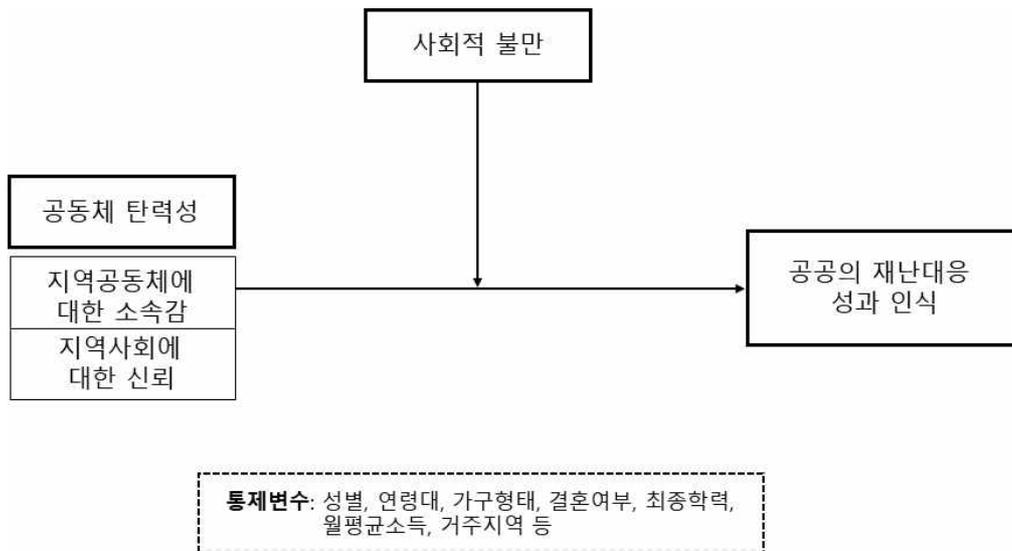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 탄력성이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적 불만을 조절변수로 두어 공동체 탄력성과 재난대응 성과 인식 간의 영향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공동체 탄력성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Leykin 등(2013)이 개발 및 타당화한 10개 문항의 공동체 회복력 평가(CCRAM 10)를 참고하여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를 하위 개념으로 설정하였다. 조절변수인 사회적 불만은 선행연구(김민수 외, 2019; 김진현, 2019; 임인재 외, 2019; 구교태, 2014; 홍덕화 외, 2009)를 참고하여 개념을 정의하였으며, 재난발생 시 언론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심리적인 요인들과 더불어 언론·미디어 만족도에 대한 요인을 함께 구성하였다. 종속변수인 인지된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는 각각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소방서, 시민단체 5가지 주체로 구분하였다.

이 같은 연구 설계의 개념적 준거틀은 아래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연구 설계의 개념적 준거틀



2. 가설설정

위의 개념적 준거들을 바탕으로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공동체 탄력성이 높을수록 재난대응 성과를 높게 인식할 것이다.

가설 1-1. 재난피해자들은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높을수록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를 높게 인식할 것이다.

가설 1-2. 재난피해자들은 지역사회(지방자치단체/시민단체)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를 높게 인식할 것이다.

가설2. 공동체 탄력성과 재난대응 성과 인식의 영향관계에 있어 사회적 불만이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

가설 2-1. 사회적 불만이 공동체 탄력성과 재난대응 성과 인식 간의 영향 관계를 약화시킬 것이다.

제 2 절 변수설정

1. 종속변수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

종속변수는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이며, 구호서비스에 대한 종합 만족도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재해구호활동 만족도 조사 가이드(2015)’를 검토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는 구호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도움 수준 인식, 구호활동 관계자의 지식 숙지 수준, 구호활동

관계자의 친절성, 배분공정성 등 5개 항목에 대한 개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9).

종속변수인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은 모두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3-1>과 같다. 각 문항에 대해 ‘1=대응이 매우 미숙하였다, 2=대응이 미숙하였다, 3=보통이다, 4=대응을 잘 하였다, 5=매우 대응을 잘 하였다’로 모두 5점 척도로 측정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가 높게 인식됨을 의미한다.

<표 3-1> 종속변수 및 설문항목

종속변수	설문항목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	재난 후 중앙정부는 맡은 업무를 잘 대응했다.
	재난 후 지방자치단체는 맡은 업무를 잘 대응했다.
	재난 후 경찰서는 맡은 업무를 잘 대응했다.
	재난 후 소방서는 맡은 업무를 잘 대응했다.
	재난 후 시민단체는 맡은 업무를 잘 대응했다.

2. 독립변수

공동체 탄력성

공동체 탄력성을 평가하는 항목은 Leykin 등(2013)이 개발 및 타당화한 10개 문항의 공동체 회복력 평가(CCRAM 10; Conjoint Community Resilience Assessment Measure 10)를 사용하였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따르면 공동체 회복력은 공동체 구성원이 인식하는 소속집단의 위기 극복 역량을 측정하는 개념이다. 해당 영문 문항에 대한 타당화 연구는 아직 국내에서 진행된 바 없으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전문가 자문

을 거쳐 국문으로 번안하여 사용한 개념(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9)을 차용하였다.

공동체 탄력성은 사회적 자본을 바탕으로 구축되는데, 특히 사회적 자본의 구성 요인 중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공동체 탄력성은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 두 가지 하위 개념으로 구성하였다. 기존 설문에서는 공동체 탄력성과 관련된 문항을 10가지로 구성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해당 10가지 문항을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라는 두 가지 구성으로 각각 5개의 문항을 배치하여 분석하였다.

새롭게 구성한 해당 내용은 아래 <표 3-2>와 같다.

<표 3-2> 독립변수 및 설문항목

독립변수		설문항목
공동체 탄력성	지역공동체 에 대한 소속감	내가 사는 지역의 주민들은 서로 돕고,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 지역 사람들은 나에게 위기가 닥치면 나를 도와줄 것이다.
		우리 지역 주민들은 위급상황에서 자신의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있다.
		나는 내가 사는 지역에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은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다.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	내가 사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잘 운영되고 있다.
		내가 사는 지역은 위급상황에 대비하여 준비가 잘 되어 있다.
		내가 사는 지역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자랑스럽다.
		내가 사는 지역 단체들은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 결정권자들을 신뢰한다.

3. 조절변수

사회적 불만

재난 후 사회적 불만은 국내 표준화된 척도가 따로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Kaniasty(2012)의 재난 후 사회적 불만을 변안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재난 후 피해 노출의 심각성 및 재난 복구 과정에서의 경험이 재난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에서 주변인 혹은 이웃과의 관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따라서 문항의 주요 내용은 주변인(이웃)에 대한 관심, 유대감(단결심), 관계성에 대한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다(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9).

해당 설문에서는 조절변수인 사회적 불만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을 총 5개로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5가지 설문항목 중 ‘재난 경험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주었다.’, ‘재난을 함께 경험한 사람들과 유대감과 단결심은 아직까지 남아있다.’, ‘재난 이전에는 재난 피해를 함께 경험한 사람들끼리 우호적인 관계였다.’ 등 3가지 항목이 측정하고자 하는 사회적 불만이라는 부정 개념을 긍정으로 질문하여 답변의 신뢰도가 낮게 측정된 바, 이들을 제외한 2가지 항목만을 활용하였다. 또한, 이예슬 외(2019), 임인재 외(2019) 등의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듯이 사회적 불만 요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언론 보도 만족도’와 관련된 문항을 1가지 추가하였다.

새롭게 구성한 해당 내용은 아래 <표 3-3>과 같다.

<표 3-3> 조절변수 및 설문항목

조절변수	설문항목
사회적 불만	재난 이후 지원(금전적인)과 도움은 재난피해자들 사이를 갈라놓고 분열시켰다.
	재난 이후 지원(금전적인)과 분배과정에서 피해자들 사이에 적개심과 괴로움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나는 재난에 관련된 언론 및 보도에 만족한다.

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대, 가구형태, 결혼여부, 최종학력, 월평균소득, 거주지역 등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공동체 탄력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거주지역을 통제변수에서 제외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2019년도 보고서

를 통해 1차(2016년) 조사부터 3차(2018년) 조사까지 조사된 재난피해자의 분포가 재난 유형과 발생 연도에 따라 지역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에 4차(2019년) 조사부터는 재난피해자가 많이 응답한 지역과 상대적으로 적게 응답한 지역을 나눠서 표본 추출을 진행하였지만, 본 연구는 3차(2018년) 조사 자료를 활용하는 관계로 ‘거주지역’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제 3 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의 특성

본 연구의 연구목적인 공동체 탄력성과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간의 영향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행정안전부 산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재난피해자 삶의 변화 3차(2018) 추적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재난피해자 삶의 변화 추적조사’는 재난피해자 삶의 질 측정기술 개발을 기틀로 하여 2016년도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국내 재난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특정 계층이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재난 후 피해자의 삶의 전반적인 상황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변화를 살펴본 국내 최초의 재난피해자 종단조사이다(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9).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재난피해자 삶의 변화 3차(2018) 추적조사’ 자료는 이전 년도인 2차년도 설문 대상자에 2017년에 발생한 포항 지진 피해자 및 재난심리회복지원 이용자를 포함하여 총 2,311명으로 조사대상자를 확대하였다. 또한, 2차 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공동체 탄력성과 관련된 항목들이 추가되어 공동체 탄력성과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볼 수 있었다. 해당 연구는 총 2,311명의 표본 중 주요 변수에 응답하지 않은 45명을 제외한 2,266명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통계분석을 위해 IBM SPSS 25.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진행한 통계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인 재난피해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재난피해자들이 인식한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공동체 탄력성, 사회적 불만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후 해당 자료의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넷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 공동체 탄력성, 사회적 불만 간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탄력성을 구성하는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가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들 간의 영향 관계에서 사회적 불만의 조절 역할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조절효과에 대한 그래프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Hayes(2013)가 제안한 SPSS Process macro 1번 모형을 활용하여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불만의 대소에 따른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 수준을 추정하였다.

상기 통계분석을 위하여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통계적 유의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를 위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주관한 재난피해자 삶의 변화 추적조사 원시 자료 중 2018년에 해당하는 3차 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총 2,311명의 표본 중 주요 변수에 응답하지 않은 45명을 제외한 2,266명을 본 연구의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응답자 2,266명을 분석한 결과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 <표 4-1>과 같다.

<표 4-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987	43.6
	여자	1,279	56.4
연령대	13~18세	56	2.5
	19~29세	158	7.0
	30대	153	6.8
	40대	244	10.8
	50대	495	21.8
	60대	608	26.8
	70세 이상	552	24.4
결혼상태	기혼	1,553	68.5
	기혼 외	713	31.5
최종학력	초등이하	218	9.6

	초졸	413	18.2
	중졸	392	17.3
	고졸	809	35.7
	대학 이상	434	19.2
가구형태	1인 가구	247	10.9
	1인 가구 외	2,019	89.1
월 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337	14.9
	100만원 ~ 200만원 미만	517	22.8
	200만원 ~ 300만원 미만	506	22.3
	300만원 ~ 400만원 미만	472	20.8
	400만원 ~ 500만원 미만	214	9.4
	500만원 ~ 600만원 미만	128	5.6
	600만원 ~ 700만원 미만	54	2.4
	700만원 ~ 800만원 미만	14	0.6
	800만원 ~ 900만원 미만	4	0.2
	900만원 이상	20	0.9
거주지역	수도권	267	11.8
	충청권	349	15.4
	호남권	335	14.8
	경북권	766	33.8
	경남권	434	19.2
	강원권	25	1.1
	제주권	90	4.0
전체		2,266	100.0

제 2 절 측정도구의 신뢰도

1. 측정도구의 신뢰도

본 연구에서 활용한 주요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종속변수인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은 5개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신뢰도 계수는 .932로 나타났다. 한편, 독립변수인 공동체 탄력

성은 10개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신뢰도 계수는 .935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공동체 탄력성 중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은 5개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신뢰도 계수는 .897,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는 5개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신뢰도 계수는 .877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절변수인 사회적 불만은 3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는데 신뢰도 계수는 .652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60 이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측정 결과는 아래 <표 4-2>와 같다.

<표 4-2> 측정도구의 신뢰도

변수	Cronbach's α	항목 수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	.932	5
공동체 탄력성	.935	10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897	5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	.877	5
사회적 불만	.652	3

제 3 절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1. 기술통계

본 연구는 연구대상인 재난피해자들의 공동체 탄력성,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 사회적 불만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변수는 1~5점 범위의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분석 결과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은 평균 2.90으로 나타났다. 공공의 재난대응 중 중앙정부의 대응에 대한 성과 인식은 평균 2.73,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에 대한 성과 인식은 평균 2.81, 경찰서의 대응에 대한 성과 인식은 평균 2.92, 소방서의 대응에 대한 성과 인식은 평균 3.05, 시민단체의 대응에 대한 성과 인식은 평균 2.97로 나타나 소방서, 시민단체, 경찰서,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순으로 긍정적인 평가 결과가 나타났다.

응답 결과, 공동체 탄력성의 경우 평균 3.16으로 나타났으며,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은 평균 3.21,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는 평균 3.10, 마지막으로 사회적 불만은 평균 2.51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는 연구 자료의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였다. 왜도는 절대값 2 미만, 첨도는 절대값 7 미만이면 자료가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보는데(Curran, West & Finch, 1996), 모든 변수는 기준치 미만으로 나타나 해당 자료는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회귀분석과 같은 모수통계 진행을 위하여 해당 자료 분포에는 문제가 없음을 판단할 수 있다.

기술통계 결과는 아래 <표 4-3>과 같다.

<표 4-3> 기술통계 결과

변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	2.90	0.87	-0.04	-0.36
중앙정부	2.73	1.02	0.02	-0.66
지방자치단체	2.81	1.05	0.02	-0.72
경찰서	2.92	0.93	-0.08	-0.35

소방서	3.05	0.99	-0.22	-0.37
시민단체	2.97	0.91	-0.12	-0.19
공동체 탄력성	3.16	0.64	-0.28	0.21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3.21	0.67	-0.29	0.13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	3.10	0.66	-0.27	0.08
사회적 불만	2.51	0.72	0.15	-0.50

2.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본 연구는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공동체 탄력성,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 사회적 불만 간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통제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은 학력($r=-.054$, $p<.05$), 1인 가구 여부($r=-.049$, $p<.001$), 충청권 여부($r=-.094$, $p<.001$), 경북권 여부($r=-.190$, $p<.001$), 제주권 여부($r=-.058$, $p<.01$), 수도권 여부($r=-.099$, $p<.001$)와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가구소득($r=.111$, $p<.001$), 호남권 여부($r=.243$, $p<.001$), 경남권 여부($r=.186$, $p<.001$), 강원권 여부($r=.068$, $p<.01$)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상관관계 분석결과, 학력이 높을수록, 1인 가구일수록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공공의 재난대응을 평가하는 기준이 높아 정부의 대응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1인 가구의 경우 다인가구에 비해 지역사회에서의 소속감과 지역 주변인과의 관계성이 낮아 재난으로부터 회복

하는 데 상대적인 어려움이 있어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를 낮게 인식할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반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재난 상황 발생 시 체감하는 경제적 피해가 저소득 가구에 비해 고소득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재난으로부터 회복하는 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덜 경험하게 되므로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지역별로도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에 차이가 나타나는데, 구체적으로 충청권, 경북권, 제주권, 수도권 등의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 지진피해를 경험한 경주와 포항이 포함된 경북권과 태풍으로 인해 지역사회 고립을 다수 경험한 제주권의 경우에는 공공의 재난대응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도권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고학력자와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 공공의 재난대응을 낮게 인식할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반면, 호남권, 경남권, 강원권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를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경북권과 제주권보다 재난 규모와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종속변수, 독립변수, 그리고 조절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종속변수인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은 독립변수인 공동체 탄력성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502, p<.001$), 공동체 탄력성의 구성 요인 중 하나인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도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r=.450, p<.001$),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와도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512, p<.001$). 반면, 종속변수인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은 조절변수인 사회적 불만과는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193, p<.001$).

상관관계 분석결과, 공동체 탄력성이 높을수록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높을수록,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가설과 부합하는 결과로서 공동체 탄력성이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사회적 불만이 높을수록 재난대응 성과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인지된 구호 지원 서비스의 배분 불평등과 미디어의 왜곡 등이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수인 공동체 탄력성과 조절변수인 사회적 불만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공동체 탄력성은 사회적 불만과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227, p<.001$), 공동체 탄력성을 구성하는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도 사회적 불만과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r=-.232, p<.001$)를,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도 사회적 불만과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202, p<.001$).

상관관계 분석결과, 공동체 탄력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불만은 낮게 나타나며, 공동체 탄력성을 구성하는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사회적 불만은 낮게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공동체 탄력성이 낮을수록 사회적 불만이 높아지므로, 이 경우에는 실제 공공의 재난대응이 잘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재난피해자들이 인지한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는 낮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불만을 낮추기 위해서는 재난 예방 및 준비 단계에서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아래 <표 4-4>와 같다.

<표 4-4>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변수	1	2	3	4	5	6	7-1	7-2	7-3	7-4	7-5	7-6	7-7	8	9	9-1	9-2	10	
1	1																		
2	-.068*	1																	
3	.209***	-.576***	1																
4	.057*	.317***	-.006	1															
5	-.096***	.172***	-.184***	-.464***	1														
6	.087***	-.401***	.420***	.023	-.299***	1													
7-1	.032	.036	-.096***	.002	.019	.017	1												
7-2	-.030	.085***	-.151***	.089***	-.054*	.017	-.178***	1											
7-3	-.058**	.096***	-.013	.034	.076***	-.143***	-.305***	-.298***	1										
7-4	.043*	-.075***	.120***	-.023	-.066**	.172***	-.208***	-.203***	-.348***	1									
7-5	.009	-.011	.000	.008	.004	-.020	-.045*	-.044*	-.075***	-.051*	1								
7-6	.058**	-.041*	-.007	-.052*	.052*	-.015	-.087***	-.085***	-.145***	-.099***	-.021	1							
7-7	-.009	-.155***	.150***	-.094***	-.027	-.023	-.156***	-.152***	-.261***	-.178***	-.039	-.074***	1						
8	-.015	.014	-.054*	.005	-.049*	.111***	-.094***	.243***	-.190***	.186***	.068**	-.058**	-.099***	1					
9	.018	.088***	-.126***	.054*	-.063**	.093***	-.117***	.352***	-.064**	.148***	-.037	-.070**	-.287***	.502***	1				
9-1	.024	.094***	-.116***	.063**	-.047*	.074***	-.113***	.328***	-.019	.108***	-.039	-.066**	-.286***	.450***	.958***	1			
9-2	.010	.076***	-.126***	.040	-.075***	.103***	-.112***	.346***	-.105***	.175***	-.032	-.068**	-.264***	.512***	.957***	.834***	1		
10	.027	-.050	.100***	.037	-.022	.000	.019	-.220***	.020	.199***	-.020	-.108***	.020	-.193***	-.227***	-.232***	-.202***	1	

* $p < .05$, ** $p < .01$, *** $p < .001$

1. 성별(남자), 2. 연령, 3. 학력, 4. 결혼, 5. 1인 가구, 6. 가구소득, 7. 지역 (7-1. 충청권, 7-2. 호남권, 7-3. 경북권, 7-4. 경남권, 7-5. 강원권, 7-6. 제주권, 7-7. 수도권), 8.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 9. 공동체 탄력성, 9-1.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9-2.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 10. 사회적 불만

제 4 절 변수 간 영향 관계 검증

1.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불만의 조절효과

본 연구는 독립변수인 공동체 탄력성의 구성요소인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종속변수인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불만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모형에서는 일반적 특성 변수와 독립변수인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투입하였고, 두 번째 모형에서는 조절변수인 사회적 불만을 추가로 투입하였으며, 세 번째 모형에서는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사회적 불만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첫 번째 모형에서는 모형의 설명력이 약 26.4%로 나타났고, 회귀모형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F=62.183$, $p<.001$). 회귀계수 유의성 검증 결과, 가구소득은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beta=.063$, $p<.01$), 지역별로 수도권 대비 충청권($\beta=-.063$, $p<.05$)과 경북권($\beta=-.141$, $p<.001$)은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를 낮게 인식한 반면, 수도권 대비 호남권($\beta=.071$, $p<.05$), 경남권($\beta=.089$, $p<.01$), 강원권($\beta=.079$, $p<.001$)은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은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beta=.401$, $p<.001$),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높을수록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도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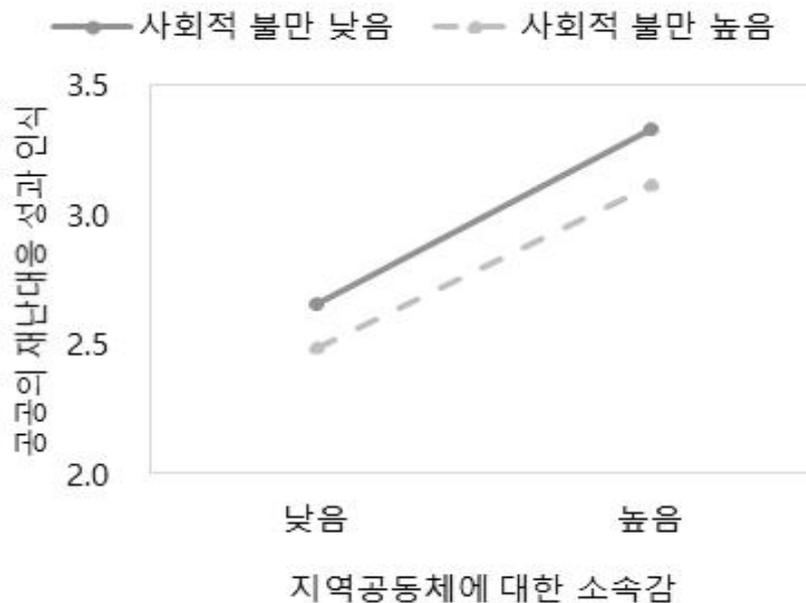
첫 번째 모형 분석결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대비 충청권과 경북권이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경북권의 경우 2016년과 2017년에 대규모 지진피해를 경험한 포항과 경주의 재난피해자들이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재난대응 성과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특히, 경주와 포항 지진 이전에는 대규모 지진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재난에 대응함에 있어 당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부족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충청권의 경우에는 두드러지게 큰 규모의 재난은 없었지만, 충북 서산시, 보은군, 음성군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여름철 호우로 인한 제방유실, 농경지 침수 등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는 등 재난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반면, 호남권, 경남권, 강원권의 경우 수도권 대비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대규모 재난 경험과 재난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은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같이 대규모 재난 피해를 경험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들이 수도권에 비해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를 높게 인식하는 이유는 1인 가구의 비중이 큰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두 번째 모형에서 조절변수인 사회적 불만을 추가로 모형에 투입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약 27.5%로 나타났고, 회귀모형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F=60.843, p<.001$). 회귀계수 유의성 검증 결과, 사회적 불만은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10, p<.001$). 즉, 사회적 불만이 높을수록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은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는 사회적 불만을 측정하기 위하여 인지된 재난지원 배분 불평등과 언론·미디어에 대한 불만족을 하위요인으로 구성한 바, 정부의 구호지원 서비스의 배분 불평등과 미디어 왜곡이 심할수록 재난피해자들은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를 낮게 인식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세 번째 모형에서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사회적 불만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모형에 투입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이 약 27.5%로 두 번째 모형에 비해 설명력이 증가하지 않았고, 회귀모형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F=56.834, p<.001$). 회귀계수 유의성 검증 결과,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사회적 불만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아,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사회적 불만은 조절적인 역할을 하지 못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사회적 불만이 높은 낮은 간에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은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에 유사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4-1>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 간 관계에서 사회적 불만의 조절효과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불만의 조절효과는 아래 <표 4-5>와 같다.

<표 4-5>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재난대응 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불만의 조절효과

변수	Model 1			Model 2			Model 3		
	<i>B</i>	β	<i>t</i>	<i>B</i>	β	<i>t</i>	<i>B</i>	β	<i>t</i>
성별 (ref=여자)	-.049	-.028	-1.491	-.045	-.026	-1.386	-.045	-.025	-1.370
연령	.004	.007	0.282	.001	.003	0.106	.001	.002	0.064
최종학력	-.024	-.034	-1.390	-.021	-.031	-1.255	-.022	-.032	-1.296
결혼	-.056	-.030	-1.280	-.041	-.022	-0.933	-.042	-.022	-0.948
1인 가구	-.035	-.012	-0.550	-.030	-.011	-0.484	-.030	-.011	-0.477
가구소득	.032	.063	2.921**	.030	.058	2.713**	.029	.057	2.656**
지역 (ref=수도권)									
충청권	-.153	-.063	-2.429*	-.140	-.058	-2.245*	-.143	-.059	-2.280*
호남권	.173	.071	2.523*	.154	.063	2.256*	.146	.059	2.110*
경북권	-.259	-.141	-4.655** *	-.244	-.133	-4.418** *	-.249	-.136	-4.486** *
경남권	.196	.089	3.192**	.253	.115	4.097***	.256	.116	4.131***
강원권	.657	.079	4.187***	.641	.077	4.116***	.641	.077	4.118***
제주권	-.175	-.039	-1.896	-.219	-.049	-2.386*	-.220	-.049	-2.394*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A)	.522	.401	19.785** *	.489	.376	18.244** *	.490	.376	18.250** *
사회적 불만(B)				-.133	-.110	-5.676** *	-.134	-.110	-5.700** *
A×B							-.027	-.016	-0.884
<i>F</i>	62.183***			60.843***			56.834***		
<i>R</i> ²	.264			.275			.275		

* $p < .05$, ** $p < .01$, *** $p < .001$

2.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가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불만의 조절효과

본 연구는 독립변수인 공동체 탄력성의 구성요소인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가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와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불만이 조절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모형에서는 일반적 특성 변수와 독립변수인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를 투입하였고, 두 번째 모형에서는 조절변수인 사회적 불만을 추가로 투입하였으며, 세 번째 모형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불만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첫 번째 모형에서는 모형의 설명력이 약 29.9%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F=74.016$, $p<.001$). 회귀계수 유의성 검증 결과, 가구소득은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beta=.050$, $p<.05$), 지역별로 수도권 대비 충청권($\beta=-.063$, $p<.05$)과 경북권($\beta=-.124$, $p<.001$)은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를 낮게 인식하는 반면, 수도권 대비 경남권($\beta=.054$, $p<.05$)과 강원권($\beta=.076$, $p<.001$)은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는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beta=.461$, $p<.001$),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도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첫 번째 모형 분석결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대비 충청권과 경북권이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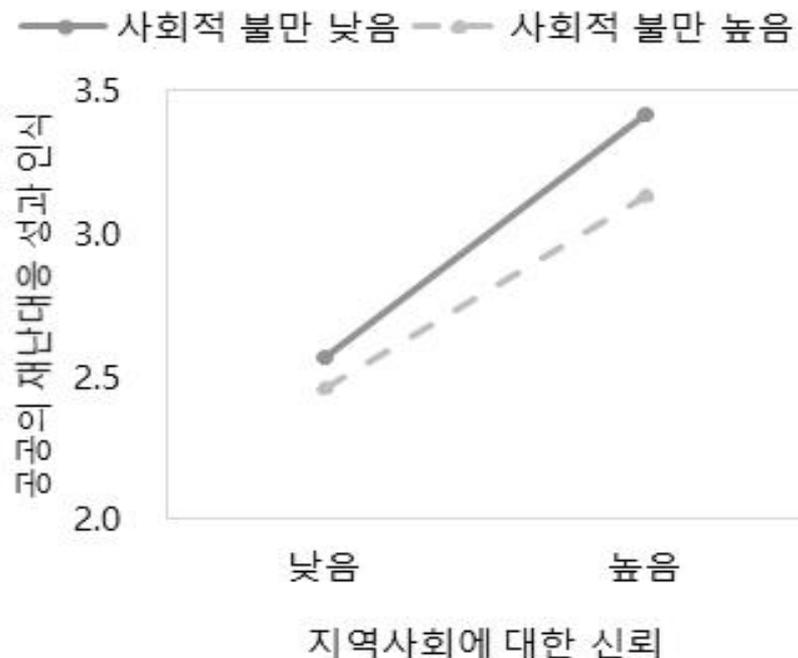
경북권의 경우 대규모 지진피해를 경험한 포항과 경주가 포함되어 있어 재난대응 성과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충청권의 경우에도 여름철 호우로 인한 침수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재난 노출도가 크기 때문에 재난대응 성과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반면, 경남권과 강원권의 경우 수도권 대비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대규모 재난 경험과 재난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는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규모 재난 피해를 경험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수도권에 비해 경남권과 강원권의 경우 상대적으로 구성원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가 높아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를 더 높게 인식하기 때문으로 그 이유를 추측할 수 있다.

두 번째 모형에서 사회적 불만을 추가로 모형에 투입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약 31.0%로 나타났고, 회귀모형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F=72.241$, $p<.001$). 회귀계수 유의성 검증 결과, 사회적 불만은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10$, $p<.001$). 즉, 사회적 불만이 높을수록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는 사회적 불만을 측정하기 위하여 인지된 재난지원 배분 불평등과 언론·미디어에 대한 불만족을 하위요인으로 구성한 바, 정부의 구호서비스 배분 불평등과 미디어 왜곡이 심할수록 재난피해자들은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를 낮게 인식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세 번째 모형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불만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모형에 투입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이 약 31.3%로 두 번째 모형에 비해 설명력이 약 0.3% 증가하였고, 회귀모형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F=68.420$, $p<.001$). 회귀계수 유의성 검증 결과,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불만의 상호작용항은 부(-)적으로 유의

한 결과를 보였다($\beta = -.059, p < .01$). 즉,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가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사회적 불만이 조절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와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가 반대 부호를 보이므로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와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 간의 정(+)의 영향 관계를 사회적 불만이 약화시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Process macro를 통해 도출된 그래프인 <그림 4-2>를 확인해보아도 사회적 불만이 낮은 경우보다 사회적 불만이 높은 경우 그래프의 기울기가 완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2>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와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 간 관계에서 사회적 불만의 조절효과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가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불만의 조절효과는 아래 <표 4-6>과 같다.

<표 4-6>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가
재난대응 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불만의 조절효과

변수	Model 1			Model 2			Model 3		
	<i>B</i>	β	<i>t</i>	<i>B</i>	β	<i>t</i>	<i>B</i>	β	<i>t</i>
성별 (ref=여자)	-.041	-.023	-1.281	-.038	-.022	-1.199	-.036	-.021	-1.153
연령	.003	.005	0.203	.000	.000	0.016	-.001	-.003	-0.109
최종학력	-.011	-.016	-0.650	-.009	-.012	-0.520	-.012	-.017	-0.700
결혼	-.024	-.013	-0.548	-.009	-.005	-0.221	-.013	-.007	-0.295
1인 가구	.019	.007	0.304	.021	.008	0.343	.022	.008	0.354
가구소득	.026	.050	2.391*	.023	.046	2.177*	.021	.042	2.004*
지역 (ref=수도권)									
충청권	-.151	-.063	-2.464*	-.141	-.058	-2.313*	-.151	-.063	-2.483*
호남권	.107	.044	1.599	.083	.034	1.252	.050	.020	0.742
경북권	-.227	-.124	-4.227** *	-.218	-.118	-4.079** *	-.238	-.130	-4.446** *
경남권	.118	.054	1.958*	.175	.079	2.880**	.184	.083	3.035**
강원권	.629	.076	4.110***	.613	.074	4.034***	.610	.073	4.024***
제주권	-.171	-.038	-1.902	-.218	-.049	-2.433*	-.227	-.051	-2.540*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A)	.606	.461	22.898***	.577	.438	21.580***	.579	.440	21.702***
사회적 불만(B)				-.134	-.110	-5.894** *	-.138	-.114	-6.085** *
A×B							-.095	-.059	-3.257**
<i>F</i>		74.016			72.241			68.420	
<i>R</i> ²		.299			.310			.313	

* $p < .05$, ** $p < .01$, *** $p < .001$

3. 가설검증 결과 요약

가설검증 결과, 재난피해자들은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높을수록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검증되었고, 마찬가지로 재난피해자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재난대응 성과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적 불만은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 간의 영향관계를 약화시키지 않는 것으로 검증되었고,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와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 간의 영향관계는 약화시키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 같은 가설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 <표 4-7>과 같다.

<표 4-7> 가설 검증 결과 요약

구분	가설	결과
1-1	재난피해자들은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높을수록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를 높게 인식할 것이다.	채택
1-2	재난피해자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재난대응 성과를 높게 인식할 것이다.	채택
2-1	사회적 불만이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재난대응 성과 인식 간의 영향관계를 약화시킬 것이다.	기각
2-2	사회적 불만이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와 재난대응 성과 인식 간의 영향관계를 약화시킬 것이다.	채택

제 5 장 결론

제 1 절 요약 및 시사점

1. 연구의 요약

해당 연구는 공동체 탄력성이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사회적 불만이 이들의 영향관계에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독립변수인 공동체 탄력성은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 등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으며, 각각의 하위요인과 종속변수인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 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보았다. 이 때 성별, 연령대, 가구형태, 결혼여부, 최종학력, 월평균소득, 거주지역 등은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먼저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불만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첫 번째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형은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Model 1에서는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독립변수인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투입하였고, Model 2에서는 조절변수인 사회적 불만을 추가로 투입하였으며, Model 3에서는 독립변수인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사회적 불만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Model 1의 분석결과, 가구소득은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대비 충청권과 경북권은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호남권, 경남권, 강원권은 공공의 재난대응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은 공공의 재난

대응 성과 인식에 유의한 정(+)¹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높을수록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Model 2에서 사회적 불만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사회적 불만은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에 유의한 부(-)²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불만이 높을수록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Model 3에서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결과,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사회적 불만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즉, 사회적 불만 정도와 관계 없이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은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에 유사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가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불만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두 번째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형은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Model 1은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독립변수인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를 투입하였고, Model 2에서는 조절변수인 사회적 불만을 추가로 투입하였으며, Model 3에서는 독립변수인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불만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Model 1의 분석결과, 가구소득은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에 유의한 정(+)³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대비 충청권과 경북권은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남권과 강원권은 공공의 재난대응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는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에 유의한 정(+)⁴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Model 2에서 사회적 불만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사회적 불만은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에 유의한 부(-)⁵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불만이 높을수록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Model 3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불만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결과,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불만의 상호작용항은 부(-)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즉,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가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사회적 불만이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와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가 반대 부호를 보이므로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와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 간의 정(+)의 영향 관계를 사회적 불만이 약화시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재난피해자들의 공동체 탄력성과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 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높을수록,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적 불만은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 간의 영향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와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 간의 영향 관계는 약화시키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2. 연구의 시사점

공동체 탄력성과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 간의 영향 관계와 사회적 불만의 조절효과 검증을 통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공동체 탄력성을 구성하는 요인 중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높을수록 재난피해자들은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즉,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를 높이는 방식으로 재난대응 시스템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에 대한 지역민들의 소속감을 높이는 접근법을 고민해 볼 수 있다. 특히, 인지된 배분 불평등과 미디어 왜곡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불만이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공공의 재

난대응 성과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공동체 소속감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적 요인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공동체 탄력성을 구성하는 요인 중 지역사회(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재난피해자들은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즉,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를 높이는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지역 구성원들의 신뢰를 높이는 접근법을 고민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인지된 배분 불평등과 미디어 왜곡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불만이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와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 간의 정(+)의 영향 관계를 약화시키므로 지역사회에 대한 구성원들의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사회적 불만을 함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인지된 구호 지원 서비스의 배분 불평등과 미디어 왜곡으로 인한 불만족으로부터 기인하는 사회적 불만은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 간의 정(+)의 영향 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와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 간의 유의한 정(+)의 영향 관계는 약화시킨다. 즉, 지역 구성원들의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높으면 사회적 불만 정도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반면, 지역사회(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가 재난대응 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 불만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는 사회적 불만 자체가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영역으로부터 기인하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재난피해자들이 재난 지원금이나 구호물자 배분 과정에서 불평등을 느끼거나 미디어를 통해 왜곡된 재난 정보에 노출되는 경우, 중앙정부와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되므로 이는 결국 재난피해자들이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를 낮게 인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상의 주요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적 자본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공동체 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의 공동체 활성화를 독려해야 한다. 재난은 신체적,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불안과 공포라는 심리적인 피해 요인을 동반하므로 재난피해자들이 속한 사회적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지역행사나 시민단체 활동을 독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재난으로부터 도시 회복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지역사회 내에서의 소속감이 상대적으로 약하므로 1인 가구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봉사단체를 운영하거나 1인 가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역행사를 기획하는 등의 시도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재난발생 이후 구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이나 가구 단위가 아닌 공동체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들이 함께 모여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도시의 회복력을 높이는 또 다른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 자본을 바탕으로 재난피해자들의 공동체 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를 크게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로 구성하여 살펴보았다. 재난 발생 시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에서 재난 피해를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체감하고 대응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과 해당 지역 시민단체들의 책임의식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특히 재난 발생빈도가 높거나 대규모 재난을 경험한 지역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물론 정책 의사결정자, 민간 전문가, 그리고 재난 피해를 경험한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재난대응팀을 구성하여 민관협치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지역 구성원들이 빠르게 소통하고 이를 토대로 효율적인 재난대응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재난

발생 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관련된 모든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명한 정보 공개는 물론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청렴도를 강조함으로써 지역 구성원들의 사회적 신뢰를 높일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재난과 같은 위기 상황 발생 시 공공의 재난대응에 대한 지역 구성원들의 정책 수용도를 높여 빠르고 효과적인 재난대응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난대응에 있어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와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 간의 유의한 정(+)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사회적 불만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재난을 경험하면서 재난지원금이나 구호 물품과 같은 재난 구호 지원 서비스의 배분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가시화되었다. 재난피해자들은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 피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명확하지 않은 구호 지원 서비스의 배분 기준이나, 배분 과정에서 인지되는 불평등은 결국 사회적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재난피해자들의 상황에 대한 언론 왜곡이나 미디어를 통해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불만을 야기시킬 수 있다. 이 같은 사회적 불만이 증가하게 되면 결국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는 낮게 인지되므로 배분 불평등과 미디어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행정안전부 산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재난피해자 삶의 변화 3차(2018) 추적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이는 재난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형태의 자료이므로 응답자의 주관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에 따라 결과의 높은 신뢰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특히, 독립변수인 공동체 탄력성은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를 측정하는 문항을 통해 그 결과를 해석하였으며, 종속변수인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도 마찬가지로 응답자의 주

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그 결과를 해석하였다. 이처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인지-인지’의 형태로서 주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개념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 같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모두 주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동일한 응답자가 동일한 시점에 설문에 응답하게 되는 경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과장될 수 있다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각각 다른 방식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지만, 종속변수인 공공의 인지된 재난대응 성과의 개념을 객관적으로 정의하기 위한 데이터 구축은 개인 단위의 연구에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독립변수인 공동체 탄력성을 설문이 아닌 다른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측정하는 것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지역 구성원들이 봉사활동, 시민단체 활동, 지역사회 행사 참여 등을 통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는 횟수, 가족 구성원 수, 해당 지역 거주 기간 등의 객관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데이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다.

또한, 측정 시점을 다르게 하여 동일방법편의를 막을 수 있는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재난피해자 실태조사의 경우 패널조사로서 2015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특히 기존 재난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설문에 참여하여 축적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기존 응답자에 신규 응답자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설문 대상자를 확대하고 있다. 다만, 본 연구의 경우 공동체 탄력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측정하고자 하였고, 해당 개념에 대한 설문이 3차 조사(2018)부터 진행되었으며 아직 4차 조사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아 2018년 단년도 데이터밖에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데이터 확보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2018년 이후 같은 응답자가 향후 몇 년간 공동체 탄력성과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인식에 대해 응답을 하게 되므로, 향후 데이터가 축적된다면 더욱 타당도

와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동체 탄력성과 공공의 재난대응 성과 간의 영향 관계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재난은 발생 규모와 피해 정도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난 예방은 그 자체로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재난은 예방보다는 관리의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며, 재난 발생 시 재난피해자들과 지역사회가 재난 이전의 상태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도시 및 지역 단위에서 지역 구성원들의 소속감과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등 공동체 탄력성을 구축해놓지 않는다면, 결국 이 같은 제도적 노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 중심의 재난대응도 중요하지만, 지역 및 공동체 단위의 재난대응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난관리 차원에서 향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재난피해자 실태조사를 통해 축적되는 공동체 탄력성과 관련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동체 탄력성이 재난대응과 도시회복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구교태. (2014). 재난에 관한 위협이 미디어 의존과 재난 인식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1권 3호, 128-147.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8). 재난피해자 추적조사 조사 데이터 설명자료.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9). 재난피해자 재난 이후 삶의 변화와 재난구호 서비스 개발.

권혜지. (2020). 재난경험자의 회복탄력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김남두, & 황용석. (2017). 재난이슈에서 적대적 미디어 지각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이슈 관여 개념의 이론적 타당성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61권 5호, 40-68.

김도균. (2010). 환경재난에 의한 어촌마을의 주민갈등과 사회자본: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를 중심으로. 환경사회학연구, ECO 제14권 1호, 125-165.

김목한. (2014). 회복탄력성 도시(Resilient Cities). 세계와 도시, 제7권, 세계도시연구센터, 82-86.

김민수, 이용호, & 배병규 (2019). 재난피해가 사회적 불만에 미치는 영향: 국가 서비스 지원의 조절효과 검증. Crisisonomy, 제15권 12호,

155-168.

김새봄, 최송식, & 송영지. (2019). 재난피해 노인의 우울과 삶의 질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사회참여의 조절효과. 노인복지연구, 제74권 2호, 9-34.

김영주. (2017). 정부신뢰, 재난경험, 사회적 자본이 재난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 지역의 재난피해자를 중심으로. 행정학 박사 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김영주. (2019). 재난구호 서비스 만족도와 재난지원금 형평성이 재난구호 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연구, 제28권 2호, 161-186.

김영주, & 문명재. (2020). 재난관리 정부성과 인식과 정부신뢰가 일반시민의 사회재난 예방참여에 미치는 영향. 지방정부연구, 제24권 1호, 187-213.

김이레, & 오설미. (2020). 공동체 탄력성이 재난피해자의 PTSD에 미치는 영향. Crisisonomy, 제16권 4호, 73-90.

김이레, & 이원익. (2020). 사회적 지지가 1인 가구 재난피해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6권 4호, 1-15.

김진현. (2019). 재난 후 노인들의 우울 및 불안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재난불평등 요인들. Crisisonomy, 제15권 11호, 27-41.

김현성, & 김민수. (2019). 재난피해자의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인문사회 21, 제10권 4호, 841-854.

김현정. (2016). 적대적 매체 지각이 행동의향에 미치는 영향: 정치적 정체성의 현저성과 정서, 이슈 관여도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60권 3호, 66-90.

노진철. (2015). 재난에 노출된 공동체의 탄력성 위기와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변화: 세월호 참사 사례의 안산시를 중심으로. 신학과 사회, 제29권 2호, 133-179.

노진철. (2016). 위험사회에서 도시공동체의 탄력성.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2권 11호, 115-128.

노진철. (2018). 기초발제1: 대형참사와 공동체의 탄력성. 국가위기관리학회 학술대회, 3-17.

민문경, 주혜선, & 안현의. (2016). 사회적 공감 잠재계층 분류에 따른 재난 이후 사회적 공유와 공동체 리질리언스의 차이. 상담학 연구, 제17권 6호, 183-204.

박정호. (2014). 지방정부의 정보제공이 신뢰와 서비스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제18권 1호, 291-313.

박희봉, & 이영란. (2012). 시민문화와 정부정책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논집, 제24권 4호, 913-936.

양기근. (2009). 재난에 강한 지역공동체 형성 전략: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5호, 249-256.

오혜영. (2016). 재난에서의 집단 트라우마와 지역공동체 탄력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8권 3호, 943-969.

유현정, 이재은, & 노진철. (2008). 수요자 관점에서 접근한 재난관리서비스의 개선 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집, 제8권 5호, 224-236.

유현정, & 이재은. (2009). 재난관리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반응분석: 근거이론적 접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5호, 265-276.

이관후. (2020). 긴급재난지원금의 의미와 평가: 정책의 실효성과 지자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경남발전, 46-55.

이선향. (2016). 복합재난과 사회갈등: 한국의 희생시스템과 사회균열 과정을 중심으로. 담론 201 제19권 2호, 37-61.

이예슬, 전해숙, 이권민, 민배현, & 최용상. (2019). 신문기사의 비판적 담론분석을 통한 재난대응에 대한 고찰: 2017년 11월 '포항지진'을 중심으로.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제15권 2호, 223-238.

이지은, 이승중, & 이혜림. (2020). 공공서비스 기대불일치가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 시민참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31권 1호, 7-37.

임인재, & 나은영. (2019). 태풍 재난 보도 프레임과 구체적 감정의 차별적 영향: 유발된 슬픔과 분노의 매개효과 중심. 한국언론학보, 제63권 3호, 33-68.

조남홍, & 채원호. (2008). 지방정부 재난관리 거버넌스 구축 연구: 부천시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2권 4호, 227-254.

조명선. (2019). 재난피해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제3차 재난피해자 패널 자료분석.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30권 2호, 217-225.

최남희. (2017). 재난을 뛰어 넘는 지역사회 리질리언스. 열린충남, 77권 0호, 충남발전연구원, 29-33.

최미정, & 은재호. (2018). 위험소통과 정부신뢰: 빅데이터 감정 분석을 통한 메르스 사례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제27권 1호, 33-60.

최예나. (2016). 사회적 자본이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 연구: 주민들과 선출직 기관들 간 소통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제20권 3호, 지방정부학회, 69-88.

함승경, & 김영욱. (2019). 피해자 비난과 공동체 탄력성에 관한 연구: 재난 유형과 죽음의 현저성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 제15권 3호, 152-182.

행정안전부. (2018). 2018 재해연보.

홍덕화, & 구도완. (2009).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한 사회갈등: 갈등의 제도화와 공동체의 해체. 환경사회학연구, ECO 제13권 1호, 7-47.

2. 국외문헌

Aldrich, D. P. (2012). Social, not physical, infrastructure: the critical role of civil society after the 1923 Tokyo earthquake. *Disasters* 36(3), 398-419.

Berke, Philip R., & Thomas J. Campanella. (2006). Planning for Postdisaster Resiliency.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04(1), 192-207.

Bhakta Bhandari, R. (2014). Social capital in disaster risk management: a case study of social capital mobilization following the 1934 Kathmandu Valley earthquake in Nepal. *Disaster Prevention and Management*, 23(4), 314-328.

Boudewijn Steur, Ellen van Doorne, & Thomas Zandstra. (2017). *Social Discontent and Public Administration*.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Kingdom Relations.

Christensen, T., & Laegreid, P. (2005). Trust in government: The relative importance of service satisfaction, political factors, and demography. *Public Performance and Management Review*, 28(4), 487-51.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

Dmitry Leykin, Mooli Lahad, Odeya Cohen, Avishay Goldberg, & Limor Aharonson-Daniel. (2013). Conjoint Community Resiliency Assessment Measure 28/10 Items (CCRAM28 and CCRAM10): A Self report Tool for Assessing Community Resilience.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52, 3-4.

Ganapati, N. E. (2012). Why social capital matters for women during disaster recover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72(3), 419-427.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Guilford publications.

Ho, M. C., Shaw D., Lin S., & Chiu Y. C. (2008). How do disaster characteristics influence risk perception?. *Risk Analysis*, 28(3), 635-643.

Krzysztof Kaniasty. (2012). Predicting social psychological well-being following trauma: The role of postdisaster social support.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2012, 4(1), 22 - 33.

Kung, Y. W., & Chen, S. H. (2012). Perception of earthquake risk in Taiwan: Effects of gender and past earthquake experience. *Risk Analysis*, 32(9), 1535-1546.

Labadie, J. R. (2008). Auditing of post-disaster recovery and reconstruction activities. *Disaster Prevention and Manage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17(5), 575-586.

David A. McEntire. (2001). Triggering agents, vulnerabilities and disaster reduction: towards a holistic paradigm. *Disaster Prevention and Management*, 10(3), 189-196.

Morgeson, F. V., & Petrescu, C. (2011). Do they all perform alike? An examination of perceived performance, citizen satisfaction and trust with US federal agencies, *International Review of Administrative Sciences*, 77(3), 451-479.

Rice, T. W. (2001). Social Capital and Government Performance in Iowa Communities. *Journal of Urban Studies*, 23, 375-89.

UNISDR. (2005). *Hyogo Framework for Action 2005-2015: Building the Resilience of Nations and Communities to Disasters*. World Conference on Disaster Reduction.

Vale, L. J., & Campanella, T. J. (2005). *The resilient city: How modern cities recover from disaster*. Oxford University Press.

Van Ryzin, G. G. (2004a). The Measurement of Overall Citizen Satisfaction. *Public Performance & Management Review*, 27(3), 9-28.

3. 기타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www.safekorea.go.kr/>

기초과학연구원 <https://www.ibs.re.kr/>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https://terms.naver.com/>

Abstract

The effect of community resilience on perception of performance in disaster response: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dissatisfaction

Bae, Kyung-jin

Master of Public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ffect of community resilience on the performance of disaster response in public sector recognized by disaster victims, and to improve the performance by examining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dissatisf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ty resilience and disaster response performance perceived by disaster victims. The community resilience was analyzed with two sub-factors such as a sense of belonging to

the local community and a trust in the local community. And, this study identified the effect of each factors on the perception of the performance in disaster response. The 2018 panel data for tracking changes in the lives of disaster victims conducted by th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was used for this study, and data from a total of 2,266 individuals (excluding missing values and non-responders) were analyzed. The SPSS 25.0. statistical program was used for data analysis, and the main analysis results were as follow.

First, a sense of belonging to the local community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performance of disaster response in public sector recognized by disaster victims. However, the social dissatisfaction caused by a disaster situation did not moderate relationship between the sense of belonging to the local community and the performance recognized by disaster victims. In other words, regardless of the level of social dissatisfaction, the sense of belonging to the local community has a similar effect on the perceived disaster response performance. Second, a trust in the community has also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the performance of disaster response in public sector recognized by disaster victims. However, at this time, social dissatisfaction did moderate relationship between the trust in the community and the perceived disaster response performance. In other words, the social dissatisfaction weake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rust in the community and perceived disaster response performance in public sector.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t is essential to increase community belonging among local members in the government's disaster

management. In addition, reducing social dissatisfaction is as important as increasing the trust on the public policy. Therefore,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consider the policy for disaster management at the community level rather than the disaster management at the individual level, a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policy for disaster management at the regional level to increase urban resilience to help quick recovery from the disaster damage situation.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find ways to cope with disasters to prevent community division and to reduce social dissatisfaction by minimizing inequality in the distribution of disaster-relief performance and the distortion of disaster reports by media.

keywords : Climate Crisis, Disaster Management, Disaster Victim, Community Resilience, Social Dissatisfaction, Performance in Disaster Response

Student Number : 2019-24707

재난피해자 삶의 변화 3차 추적조사
- 신규 패널 대상 질문지

--	--	--	--	--	--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본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조사는 재난 후 전반적인 삶의 영역(신체·경제·심리·사회적)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난구호서비스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진행되는 조사입니다.

어떠한 문항에도 정답은 없으므로, 귀하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에 대해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귀하의 응답은 통계처리 되어, 순수하게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또한 모든 응답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귀하의 정성어린 응답은 향후 재난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응답이 국가의 변화의 발걸음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진솔한 응답을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 10~12월
연구책임자 박상현 올림

[통계응답자의 의무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들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가구번호

□ □ □ □ □

가구번호는 "가구원현황표"에 적힌 가구번호와 동일해야 함

D형	2차 자연재해-리스트 추가	21,000 ~ 22,120	· ㉔ 가구원 현황 조사(p.2)로 이동
F형	2차 화재피해-리스트 추가	40,000 ~ 41,000	· SQ12) (p.4)로 이동
G형	2차 화재피해-리스트 추가2	45,000 ~ 46,000	· ㉔ 화재피해 사전 조사(p.3)로 이동
H형	2차 화재피해-현장 추가	50,000 ~ 51,000	· ㉔ 화재피해 사전 조사(p.3)로 이동
I형	3차 자연재해	60,000 ~ 60,103	· ㉔ 가구원 현황 조사(p.2)로 이동
J형	3차 자연재해-리스트 추가	65,000 ~ 65,130	· ㉔ 가구원 현황 조사(p.2)로 이동
K형	3차 자연재해-현장 추가	70,000 ~ 71,000	· ㉔ 가구원 현황 조사(p.2)로 이동
L형	3차 심리상담자	80,000 ~ 80,100	· ㉔ 가구원 현황 조사(p.2)로 이동
M형	3차 심리상담자-리스트 추가	85,000 ~ 86,000	· ㉔ 가구원 현황 조사(p.2)로 이동

● 가구원 현황 조사 (D형, I형, J형, K형, L형, M형 응답자)

면접원: 가구원 1에는 가구주, 가구원 2부터는 연령이 많은 순서대로 작성하고 가구원별로 아래 질문(1~6)을 반복하시오.
SQ05-5.재난 유형은 모든 가구원이 동일

1. 1~8 번째 가구원의 이름은?
2. 1~8 번째 가구원과 가구주와의 관계는?
3. 1~8 번째 가구원의 성별은?
4. 1~8 번째 가구원의 출생연도는?
5. 1~8 번째 가구원의 재난 유형은?
6. 1~8 번째 가구원의 조사 여부는?

가구원 번호	SQ0-1. 이름	SQ0-2. 가구주와 관계	SQ0-3. 성별	SQ0-4. 나이	SQ0-5. 재난 유형	SQ0-6. 조사대상 ※ 만 13세이상	SQ0-7. 조사 진행 여부
		① 가구주 ⑥ 형제자매 ② 배우자 ⑦ 조부모 ③ 자녀 ⑧ 손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⑨ 친척 ⑤ 부모 ⑩ 기타()	① 남자 ② 여자	출생년도 기재	① 태풍 ② 호우 ③ 화재 ④ 지진	① 대상 ② 비대상	① 진행 ② 미진행
1				_____			
2				_____			
3				_____			
4				_____			
5				_____			
6				_____			
7				_____			
8				_____			

D4) 귀하가 재난 사건 이후 경험한 것 중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재난 경험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 주었다.	1	2	3	4	5
㉡ 재난을 함께 경험한 사람들과 유대감과 단결심은 아직까지 남아있다.	1	2	3	4	5
㉢ 재난 이후 지원(금전적인)과 도움은 재난 피해자들 사이를 갈라놓고 분열시켰다.	1	2	3	4	5
㉣ 재난 이후 지원(금전적인)과 분배과정에서 피해자들 사이에 적개심과 괴로움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1	2	3	4	5
㉤ 재난 이전에는 재난피해를 함께 경험한 사람들끼리 우호적인 관계였다.	1	2	3	4	5

D5) 귀하의 공동체에 대해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내가 사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잘 운영되고 있다.	1	2	3	4	5
㉡ 내가 사는 지역의 주민들은 서로 돕고,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1	2	3	4	5
㉢ 내가 사는 지역은 위급상황에 대비하여 준비가 잘 되어 있다.	1	2	3	4	5
㉣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자랑스럽다.	1	2	3	4	5
㉤ 내가 사는 지역에 있는 여러 단체들은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	2	3	4	5
㉥ 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 결정권자들을 신뢰한다.	1	2	3	4	5
㉦ 우리 지역 사람들은 나에게 위기가 닥치면 나를 도와줄 것이다.	1	2	3	4	5
㉧ 우리 지역 주민들은 위급상황에서 자신의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있다.	1	2	3	4	5
㉨ 나는 내가 사는 지역에 소속감을 느끼고 있다.	1	2	3	4	5
㉩ 우리 지역 주민들은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다.	1	2	3	4	5

D6) 재난 후 구호서비스 및 복구 과정의 정보를 전달받았습니까?

- 1. 그렇다
- 2. 아니다 → **D7)로 이동**

[D6)의 1. 응답자만]

[복수응답]

D6-1) 재난 경험 당시, 구호서비스 및 복구과정의 정보를 전달 받은 곳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해당되는 곳을 모두 말씀해주세요.

- 1. 피해지역 내 함께 거주하는 주민 (이웃 등)
- 2. 피해지역의 단체장 (이장 등)
- 3. 재난지역의 지원 공무원
- 4. 재난지역의 봉사활동 단체 및 자원봉사자
- 5. 기타()

[모든 응답자]

D8-4) 재난 이후 거주지 주민(이웃)이나 지자체, 중앙정부 등과 갈등에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1. 개인 지원 내용 및 수준에 대한 갈등
2. 피해자 간 지원 수준 차이로 인한 갈등
3. 지역 복구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4. 피해조사와 피해지원 과정에서의 갈등
5. 재난 피해의 원인과 책임소재로 인한 갈등
6. 기타(적을 것: _____)

D9) 재난에 관련하여 언론 및 보도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 | | | |
|-----------------------|-----------|-----------------------|---------|
| ┌
├
┤
├
└ | 1. 매우 불만족 | ┌
├
┤
├
└ | [1]로 이동 |
| | 2. 불만족 | | |
| | 3. 보통 | | |
| | 4. 만족 | | |
| | 5. 매우 만족 | | |

[D9) 1~2. 응답자만]

D9-1) 재난에 관련한 언론 및 보도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한 가지만 말씀해주세요.

1. 피해자와 조율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발표
2. 언론 및 보도 내용과 실제 내용과의 불일치
3. 이전 발표 내용의 잦은 변동
4. 취재진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5. 기타(적을 것: _____)

F6) 다음은 제공받은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전반적으로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전반적인 구호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1	2	3	4	5
(2)	구호서비스가 본인과 주변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3)	구호활동 관계자는 적절한 수준의 구호 서비스 지식을 숙지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4)	구호활동 기간 동안 본인은 구호활동 관계자로부터 적절한 서비스를 받으셨습니까?	1	2	3	4	5
(5)	구호활동 시 지원받은 물품들은 공정하게 배분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F7) 다음은 제공받은 지원 및 서비스의 배분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전반적으로 제공받은 지원 및 서비스의 배분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F7-1)	나는 적절한 양의 도움과 금전적인 지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F7-2)	재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서로 암 다투듯이 도움과 지원을 요구하였다	1	2	3	4	5
F7-3)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인 지원과 도움은 공정하게 배분되었다.	1	2	3	4	5
F7-4)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도움과 금전적인 지원이 있었다	1	2	3	4	5
F7-5)	금전적인 지원과 도움의 분배과정에 갈등과 불일치, 불만이 발생하였다	1	2	3	4	5

F8) 재난 후 각 기관들이 맡은 업무를 잘 대응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대응이 매우 미숙하였다	대응이 미숙하였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대응을 잘하였다	매우 대응을 잘했다
(1)	(중앙)정부	1	2	3	4	5
(2)	지방자치단체(시정, 도청)	1	2	3	4	5
(3)	경찰서	1	2	3	4	5
(4)	소방서	1	2	3	4	5
(5)	시민단체	1	2	3	4	5

마지막으로 자료 분류를 위한 질문입니다.

G1) 귀하의 현재 결혼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1. 미혼 2. 기혼 3. 이혼 4. 별거 5. 사별 6. 기타(적을 것: _____)

G2) 귀하의 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

1. 초등이하 4. 고졸
2. 초졸 5. 대학 이상
3. 중졸

G3)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1. 서울특별시 10. 강원도
2. 부산광역시 11. 충청북도
3. 대구광역시 12. 충청남도
4. 인천광역시 13. 전라북도
5. 광주광역시 14. 전라남도
6. 대전광역시 15. 경상북도
7. 울산광역시 16. 경상남도
8. 세종특별자치시 17. 제주특별자치도
9. 경기도 18. 기타(적을 것 : _____)

나머지 주소: _____ 구/군 읍/면/동

G4) 현재 함께 살고 계시는 가족 모두의 한 달 평균 총수입은 얼마 정도입니까?
임대소득, 예금이자 등을 모두 포함한 가구 월평균 총수입을 말씀해 주십시오.

1. 100만원미만
2.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3.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4.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5.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6.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7. 6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8. 7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9. 8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0. 900만원 이상

G5) 현재 가구의 형태는 어떠하십니까?

1. 1인 가구
2. 1인 가구 외 (가구원 수: __명)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면접 후 기록				
면접원 이름		지역	면접원 ID	
Supervisor			검 증 원	